DARK HORSE COMICS
BLIZZARD ENTERTAINMENT
#1/5
OVERWATCH®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MARIKO TAMAKI
BABS TARR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1/5

오버워치 해체 후 수년이 흐르고, 세상에는 불의가 횡행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지각력과 지능을 갖춘 옴닉이라는 로봇들은 옴닉 사태 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차별의 종식과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웅은 흔히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나죠.

글 *MARIKO TAMAKI* 그림 *BABS TARR*
레이아웃 *HUNTER CLARK* 채색 *RACHAEL COHEN* 식자 *DERON BENNETT* 표지 *BENGAL*

다크 호스 코믹스

대표 및 발행인 *MIKE RICHARDSON* 선임 편집자 *PHILIP R. SIMON* 보조 편집자 *JOSHUA ENGLEDOW*
디자이너 *PATRICK SATTERFIELD* 디지털 아트 테크니션 *ADAM PRUETT*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편집 팀

수석 편집자 *CHLOE FRABONI, PAUL MORRISSEY*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DEREK ROSENBERG, FELICE HUANG*
소비자 제품 디렉터 *BYRON PARNELL* 북 아트 & 디자인 매니저 *BETSY PETERSCHMIDT*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KAPLAN, MICHAEL CHU, JEFF CHAMBERLAIN, ARNOLD TSANG, GEORGE KRSTIC, ALYSSA WONG, SEAN COPELAND, MADI BUCKINGHAM*

Blizzar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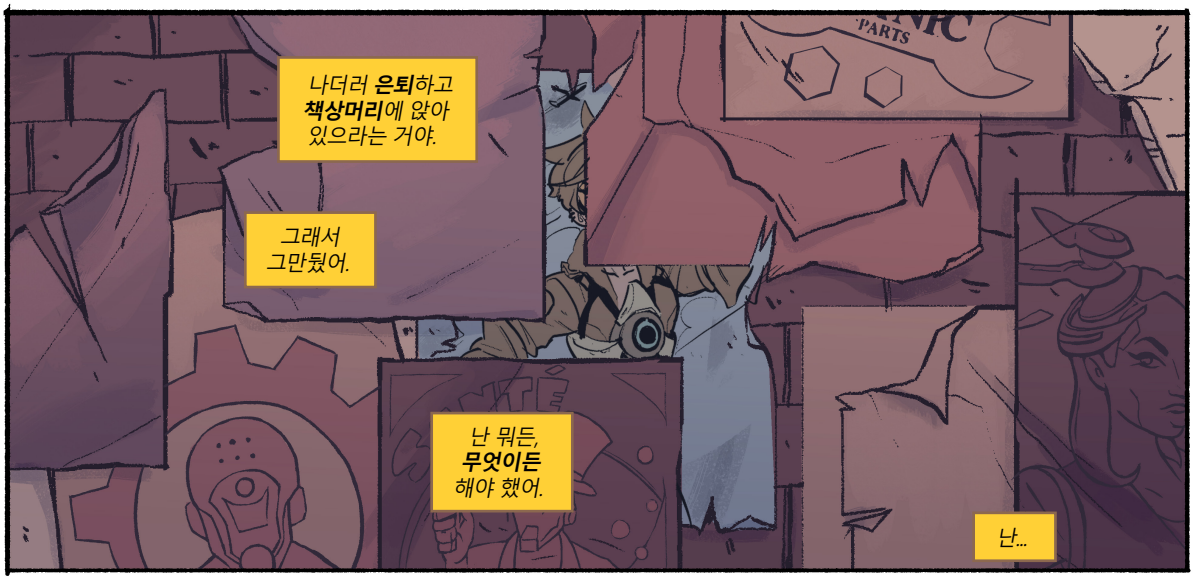
도움 주신 분 *DAVID SEEHOLZER*

DarkHorse.com Facebook.com/DarkHorseComics Twitter.com/DarkHorseComics

OVERWATCH® © 2020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고 Blizzard Entertainment는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Dark Horse Comics®와 Dark Horse 로고는 여러 카테고리와 국가에서 등록된 Dark Horse Comics LLC의 상표입니다. 모든 권리는 Dark Horse Comics LLC에 있습니다. Dark Horse Comic LLC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 발행물에 등장하는 이름, 인물, 장소 및 사건은 저자의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로서 사용됩니다. 풍자의 의도가 없는 실존 인물(생존 여부와 무관), 사건, 기관, 장소와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내 이름은 레나 옥스턴.
일명 트레이서야.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영웅**이지.
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Turbo

페트라스 법이
통과되고 오버워치가
해체된 후...
...한동안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
RAF*에서
버티려고도
해 봤어.
결국 망했지.
RAF: 왕립 공군
(Royal Air Force)


나더러 **은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만뒀어.
난 뭐든,
무엇이든
해야 했어.
난...

영국 런던, 현재.
...움직여야 했어.

도와줘요!
걱정 마세요.
해결사가
왔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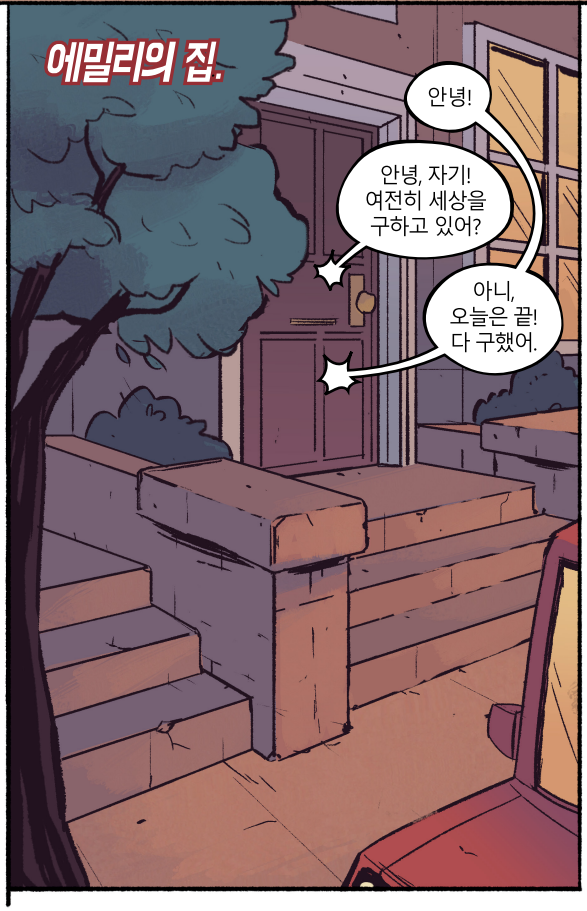
어이!
도둑이야!
방금... 트레이서 아냐?
그래서 알아서 일을 찾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지.
!
잡았다!

사소한 일들 말이야.
에밀리는 이걸 영웅 과목 보충 수업이라 하더라고.
저기요!
뭐야-?!
됐다!
헉
여기 있어요! 아주 멀쩡하죠!
고마워요!
멋지다! 포스터랑 똑같아!
당신 트레이서죠!
어, 레나예요. 지금은요.

그럼 오버워치가 돌아온 건가요?
어,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만!
우리 남편한테 꼭 말할게요. 트레이서!
그래도 트레이서는 괜찮은 쪽이었는데.

차 마실 시간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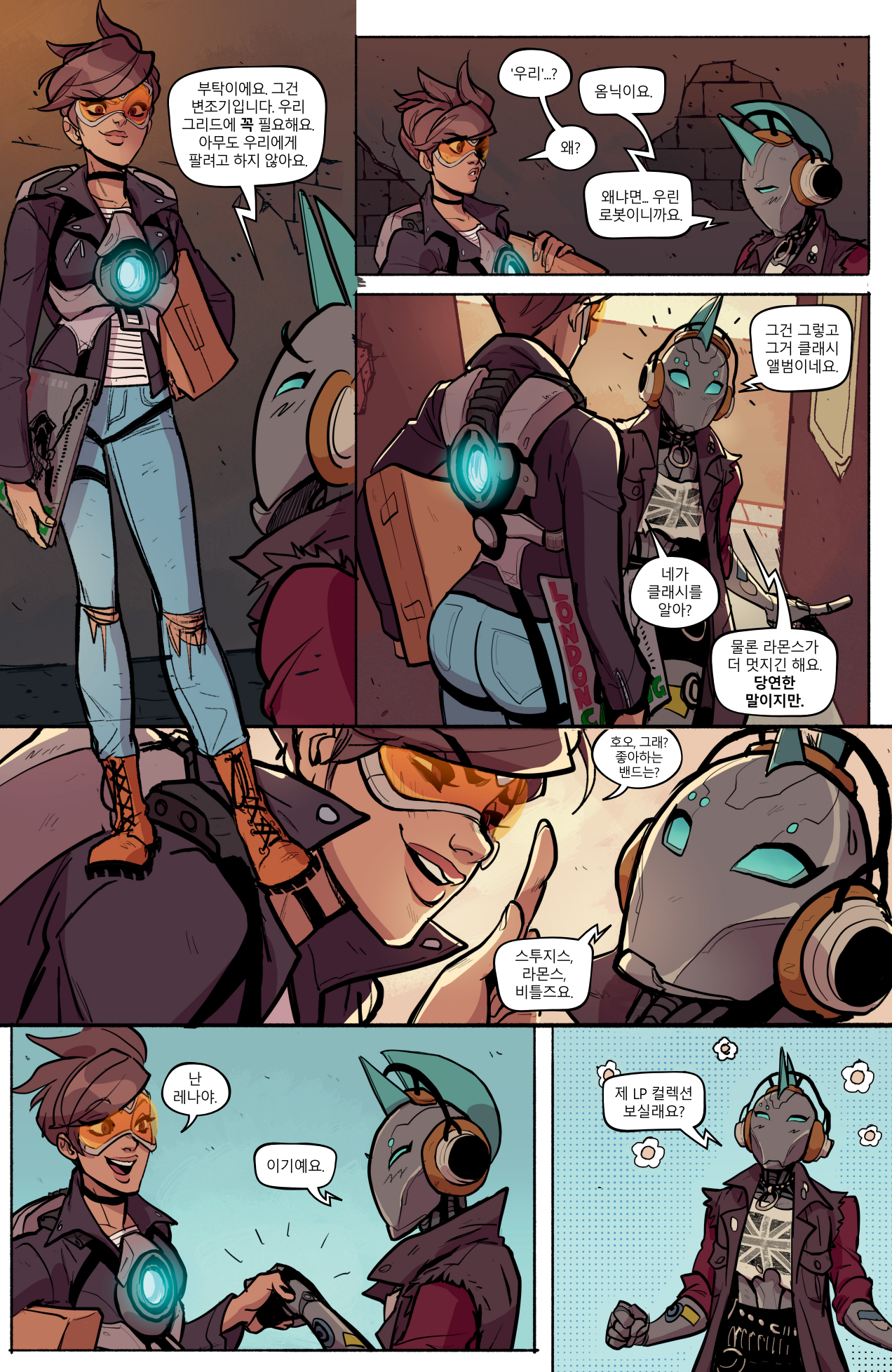

에밀리의 집.
안녕!
안녕, 자기!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있어?
아니, 오늘은 끝! 다 구했어.

면식 어때?
좋지!

오늘도 나무에 걸린 고양이 구했어?
바이커가 훔친 상자를 구했지.
있잖아, 닭고기 쪽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 한 입만 더 먹어 볼래.
너... 행복해? 이러는 게?
당연하지! 오버워치는 아니라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
대답을 피하네.
아주 행복해.
쪽
...대체로 행복하지.
완전히 행복해질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까.
오버워치는 끝났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영웅일 뿐이지. 파트타임 영웅이랄까?
그것도 나름-
쿵
정지!
정지!
EMPIRE RECORDS
SINCE 1959
로봇이야!
?
POLICE
POLICE
경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번 달에 벌써 세 번째야.
"작은 옴닉아. 무슨 일을 꾸미는 거니?"
경찰관님! 여기 한 놈 더 있어요!
EXIT

경찰! 이쪽이에요!
이봐!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간식거리가 필요한데.
숨을 곳은 없어!
이건 내가 접수.


부탁이에요. 그건 변조기입니다. 우리 그리드에 꼭 필요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팔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왜?
옴닉이요.
왜냐면... 우린 로봇이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거 클래시 앨범이네요.
네가 클래시를 알아?
물론 라몬스가 더 멋지긴 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호오, 그래? 좋아하는 밴드는?
스투지스, 라몬스, 비틀즈요.
난 레나야.
이기예요.
제 LP 컬렉션 보실래요?

지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요.
헐.
옴닉들이 바닥부터 건설한 곳이죠.
이 밑에 옴닉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튜링 그린이 물론-
실패작이었다고요?

지하 세계도 조금은 실패작이지만, 고철로만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번듯하죠.

그래.

터널 끝까지 가면 이렇게 어둡진 않아요.
그나마 제가 빛을 발해서 다행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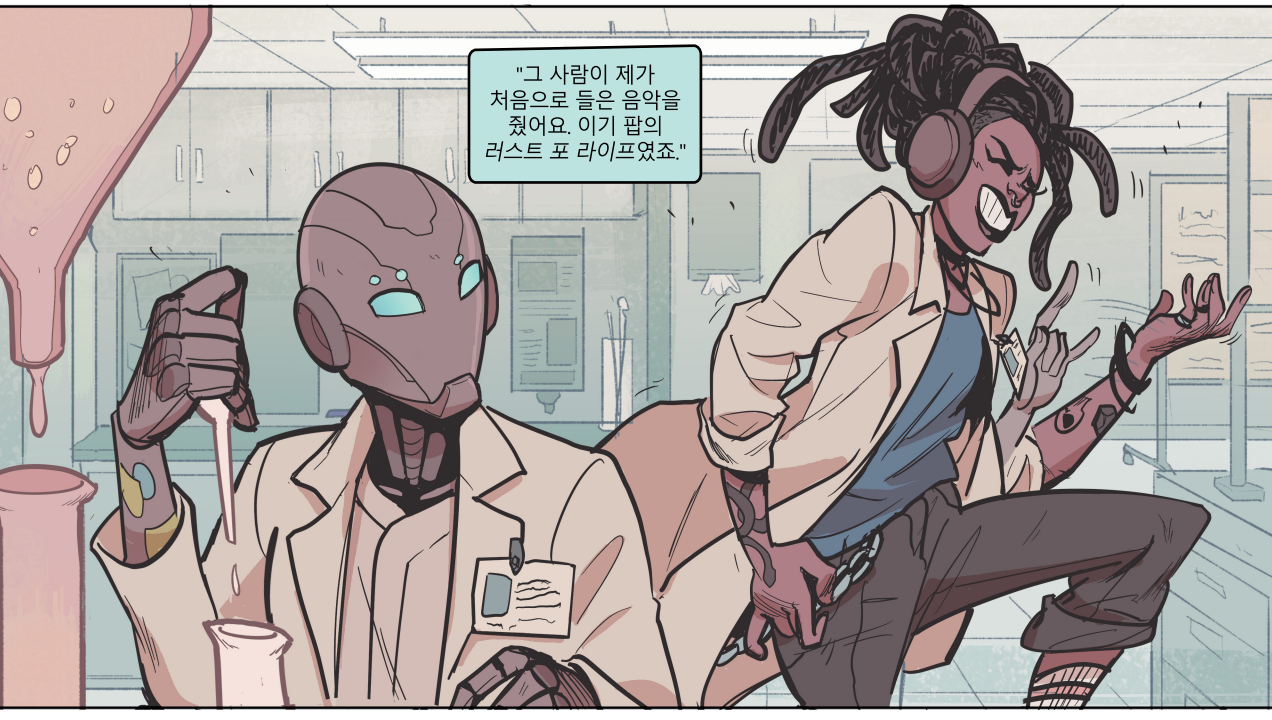
이제 런던의 옴닉들은 대부분 여기 살아요. 왕의 길의 **웬만한** 곳보다 안전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안녕!
훔쳐 오는 물자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어요.
우리도 물건을 빼앗고 싶진 않지만...
이게 **그리드**예요.
와아!
그리드는 지하 세계에 전력을 공급하고, 우리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 주죠. 이것 덕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망가지고 있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집 보실래요? 저랑 친구들이 사는 곳이요.
좋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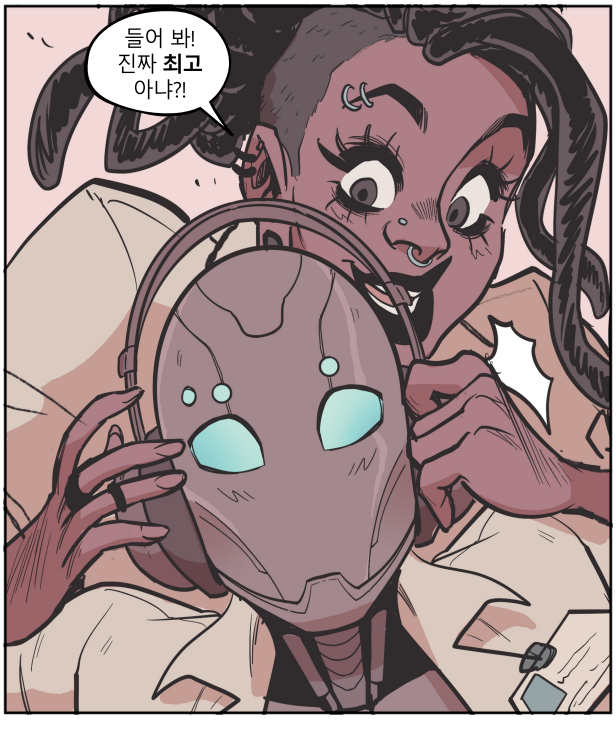
짜잔!
레나, 이쪽은 레이디와 리지예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진짜 1960년 비틀즈 포스터잖아!
빈티지 LP다!
마음에 들어요?
완전 미쳤어!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니 좋네요.
옴닉들이 다 생각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SEX PISTOLS
이 앨범, 열 살 생일 때 60파운드에 샀었는데.
인간 음악에는 영혼이 있어요!
옴닉 것도 나쁘지 않아.
그걸 음악이라 하고 싶다면 말이죠.
말이 너무 심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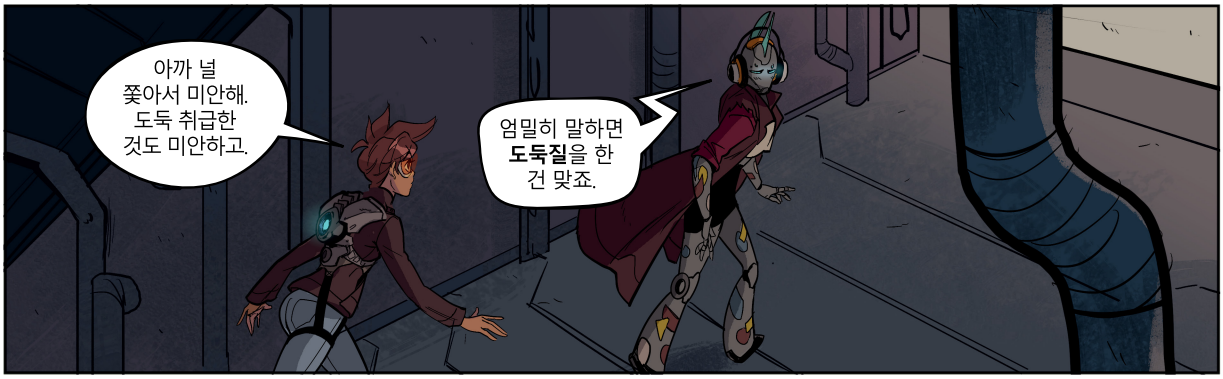
이건 누구 거야?

제 거요.
인간에게 받은 거예요. 같이 일했던 연구실 기술자였죠.


"그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들은 음악을 줬어요. 이기 팝의 *러스트 포 라이프*였죠."


들어 봐! 진짜 **최고** 아냐?!

멋진걸.


아까 널 쫓아서 미안해. 도둑 취급한 것도 미안하고.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을 한 건 맞죠.

내가 보기엔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 같은걸.
그것도 맞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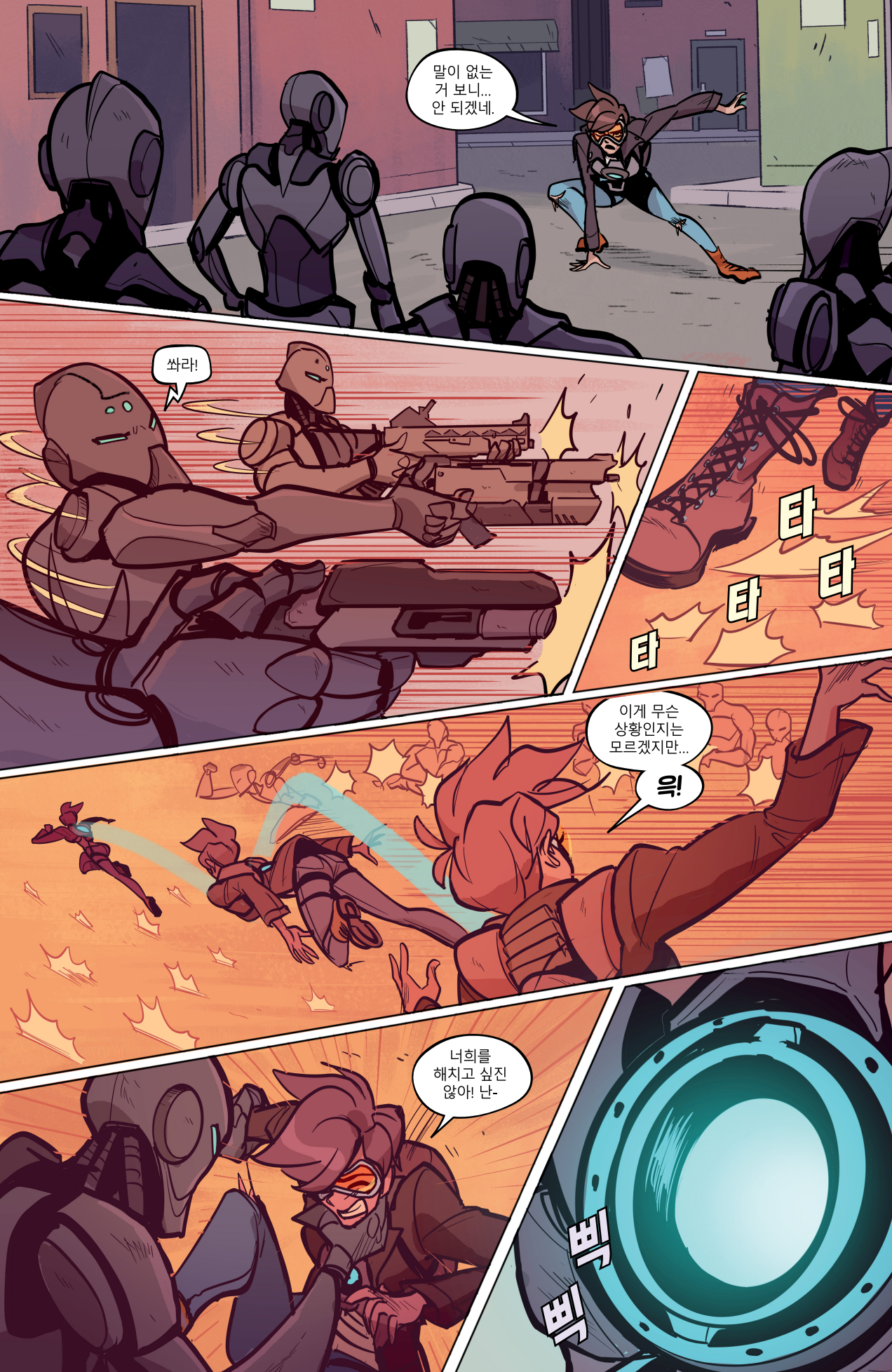
부탁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
네, 꼭 그럴게요.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요.
무슨 말씀. 이 얼굴, 다시 보게 될걸?

내 말 믿어.
알았어요!

에밀리한테 전화해 줘.
에밀리! 늦어서 미안해! 같이 펍 갈래? 난-
미안, 자기. 이따 다시 전화할게.
날 따라온 거야?
너와 나눌 말이 있다. 지하 세계와 관련해서 말이지. 붙잡아라.

날 붙잡겠다고?
이봐, 당신들이 누구인진 몰라도, 난 안 따라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평화롭게** 말이야.
그러니까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알겠어?


말이 없는 거 보니... 안 되겠네.
쏴라!
타
타
타
타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읔!
너희를 해치고 싶진 않아! 난-
삑
삑

좋아.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이것도.**
오늘 한 친구가 나한테 **도와 달라고** 했어.
그리고 **누구도** 나와 친구들을 갈라놓지 못해!
뚜 뚜
슬슬 **끝**을 내자고.

핑!
핑!
핑!
핑!
철컥
철컥
영문을 모르겠어. 오버워치와 관련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너희를 해치고 싶지 않아.
지하 세계에 오지 **마라.**
난 **돕고** 싶을 뿐이야.
옴닉에게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다. 아무리 너, 레나 옥스턴의 도움이라 해도 말이지.
끝이라고 생각 마라.
다음 편에서 계속

다음 편:

트레이서는 옴닉의 그리드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찾는 과정에서, 서로 아주 다른 옴닉 지도자 둘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인간을 불신하는 케이스, 인간과 옴닉의 평등을 꿈꾸는 몬다타입니다. 하지만 트레이서는 몬다타의 집회에서 그의 꿈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깨닫습니다.